

연출가 국제교류 활성화 심포지엄

이희용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 기조발제

(사)한국연극협회 이희용 포천시지부장이 10월14일 한국연극연출가협회(회장 손정우)가 주최한 연출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연출가 심포지움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능력 있는 연출가 배출'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이 지부장은 발제를 통해 지역 연극인의 어려운 작품제작과정과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제연극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국연극제 개최시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개최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극단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에 초청되는 외국공연을 직접 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반드시 우리의 연극이 해외시장에 초대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연출가와 공연예술인의 합리적 국외진출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지부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연의 완성도 높게 준비하여 품격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경기문화재단 당 선근부대에서 개최됐으며 발제는 김정진 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



(사)한국연극협회 이희용 포천시지부장이 10월14일 한국연극연출가협회가 주최한 연출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연출가 심포지움에서 '상호교류를 통한 능력 있는 연출가 배출'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류팀장의 '연극분야 국제교류 문예진흥기금 지원 추진', 채승훈 서울연극협회장의 '우리 연극의 국제교류, 또 하나의 도전', 박상

순 경민대 교수의 '공연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몇몇 제언', 최철기 점프연출가의 'JUMP의 성공신화'에 대한 발제와 김준현, 최준호,

원영오 등의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학술세미나 대진대와 공동주최

포천문화원 2006 제5차 이사회 개최



포천문화원은 10월17일 감사 및 이사를 포함 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5차이사회를 개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0월 17일 감사 및 이사를 포함 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5차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포천문화원 회계 규정 개정(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학술세미나를 12월 1일 대

진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기로 하였으며 문화인의 밤 행사를 12월20일 반월 아트홀 에서 개최하여 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청소년들의 무대예술 體驗 기회

10월 24일 제4회 포천 청소년 연극제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10월24일 오후 1시부터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에서 제4회 포천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

이번 연극제는 경기도내 청소년들의 협동심과 창의력, 무대예술의 직접체험의 기회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극제는 경기도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경기도 광주 경화여자고

등학교와 남양주 덕소고등학교를 초청하고 포천시는 동남중학교 연극부가 참가해 청소년연극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가 주최하고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대진대학교연극영화화학과,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신문이 후원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는 10월24일 오후1시부터 대진대학교 예술관소극장에서 제4회 포천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79)

'노루 소동'과 '붉은 망도'

1934년생들이 포천초등학교 시절인 1942년 봄 난데없이 노루 한 마리가 교실 안으로 우리창을 깨고 뛰어들어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다.

바로 노루 침입 소동이 일어난 교실은 2학년 교실이었다. 당시 교장은 일본군 군소(지금의 부사관인 원사로 제대한 예비역 군인)로 쓰다리아찌였으며 2학년 담임교사는 경성사범을 졸업한 여교사 도미이센세이였다. 따뜻한 봄 날 조용한 교실에는 연필로 공책에 글씨를 쓰는 소리만 들렸다.

글씨 예쁘게 쓰기로 유명한 도미이센세이(한국명: 전예남)는 글씨를 예쁘게 쓰도록 지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으며 칭찬과 희망을 갖게하는 선생님이었다고 전 총리 이한동님은 회상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너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성공의 날이 올거야...'라고 속삭이던 선생님의 자성예언(自戒豫言)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엄하면서도 자상하며 인정이 있는 전예남 선생을 잊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다.

그러던 봄 날 난데없이 노루 한 마리가 우리창을 깨고 바로 2학년 교실로 뛰어 들었으니 그야말로 날벼락 소동이였다.

전예남 선생님은 교탁 안으로

숨고 개구쟁이는 노루 꼬리를 잡고 흔들고 통탕삼화 집 아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니 10분만에 회상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교실에 침입한 노루는 노루가 깨고 교실로 들어 온 유리창 깨진 곳으로 되돌아 나간 것이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전설의 한 토막이었다. 한편 비가 오면 번소(화장실)에는 붉은 망도(아가이 망도) 흰망도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 여학생들이 번소가기를 싫어하고 무서워 떨기도 하였다.

붉거나 흰 망도 귀신이 나와서 자기가 좋냐고 질문을 했다가 각기 다른 대답을 하면 큰 손

톱 날을 세우고 잡아 먹는다는 전설은 여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요즈음도 전화 00번을 돌리면 괴물 목소리가 나온다느니 학교 근처에 나타난 유령의 유괴범이 괴상한 쇠를 하며 유혹한다는 괴담이 들리고 여고괴담이란 영화나 사실리 같은 영화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부터 괴담의 역사는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미국 영토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일본 해군은 동남아시아의 군항이자 요충지인 싱가포르를 공격, 함락시키던 해에 내 고향 포천에 사는 노루 교실 침입소동이 일어나고 번소 안 붉은 망도 흰망도 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1934년생들은 내 고향 포천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또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 또한 잊혀져 가고 있으니 서글프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韓國의 선비정신 · 45

내 탓이오



리효중 포천한사사 대표

허풍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그는 나이 열두 셋에 또래 아이들과 절에 올라가 글을 읽었다. 하루는 밤중에 도둑이 들어 여러 아이의 옷과 신발을 훔쳐가 버렸다. 아이들은 모두 두려워서 집으로 내려갔는데 허풍은 태연히 누워서 벽에 시 한 수를 적었다.

이미 옷을 훔쳤으면 신발만은 남겨두어야지 옷과 신발을 모두 훔쳤으니 대단한 도선생이로다.

그는 얼굴이 웅장하고 이마가 넓으며 수염이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키가 무척 컸다. 한번은 세조에게 꿈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냥을 좋아하며, 경연(經筵)에 나오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여섯 가지 잘못에 대해 논하였다. 모든 대신들이 숨을 헐떡거리고 입을 열었다. 세조는 그를 기개 있는 사람이라 여겨 벼슬을 한 품계 올려주었다. 훗날 그가 예문관의 강서(講書)를 겸직하였는데 세조가 그를 보고 말했다.

"네가 전날 나에게 글을 올린 사람인가?" 허풍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다시 그날에 제기했던 여섯 가지 잘못을 다시 논하였다. 세조는 그의 지조를 기특히 여겨 거처로 화안채 하면서 명하였다.

"저놈을 끌어내려 곤장을 쳐라!" 뜻밖에 있던 신하들이 세조의 뜻을 정확히 몰라 망설이며 겁을 집어먹었다. 세조는 칼집에 든 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사 최적(崔適)에게 명했다.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거든 저놈을 죽시 배어 죽이라!" 이윽고 세조가 천천히 칼을 뽑으니 눈부신 빛이 칼끝에서 번쩍였다. 칼끝이 허풍의 눈앞에 이르렀으나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두려워하는 빛도 없었다. 세조가 다시 칼을 칼집에 꽂으며 말했다. "참으로 대장부로다." 세조는 그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의 기개를 칭찬하였다.

허풍이 찬성(贊成)으로서 집안에 상을 당하여 시골에 내려가 있을 때였다. 하루는 흰 갓을 쓰고 굵은 벼슬을 입은 채 밭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노비도 없이 홀로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영감, 고과리로 가는 길이어는 쪽이오?" 허풍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길을 가르쳐주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홀로 말을 타고 지나갔다면 필시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고 공손하지 못하니 뒤쫓아가서 곤장이라도 쳐야겠습니까." 그러자 허풍은 아들을 말리며 말했다. "아서라! 내 탓이다. 내가 천한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그 사람이 보기에는 농부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느냐?"

허풍의 동생은 허침인데 좌의정을 지냈다. 둘 다 훌륭한 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의 누님 또한 식견이 높았다. 특히 그의 누님은 백 살이나 살아서 '백살 할머니'라고 불렸다. 형제는 조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누님을 찾아가 의논하였다. 마침 성종이 윤비를 폐하려 하자 형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누님에게 가서 물었다. 누님이 대답했다.

"윤비의 아들이 세자로 있는데 그 어머니를 폐한다면 장차 세자가 임금에 되었을 때 어찌 후환이 두렵지 않으리요."

있을 때였다. 하루는 흰 갓을 쓰고 굵은 벼슬을 입은 채 밭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노비도 없이 홀로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영감, 고과리로 가는 길이어는 쪽이오?" 허풍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길을 가르쳐주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홀로 말을 타고 지나갔다면 필시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고 공손하지 못하니 뒤쫓아가서 곤장이라도 쳐야겠습니까." 그러자 허풍은 아들을 말리며 말했다. "아서라! 내 탓이다. 내가 천한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그 사람이 보기에는 농부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느냐?"

허풍의 동생은 허침인데 좌의정을 지냈다. 둘 다 훌륭한 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그의 누님 또한 식견이 높았다. 특히 그의 누님은 백 살이나 살아서 '백살 할머니'라고 불렸다. 형제는 조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누님을 찾아가 의논하였다. 마침 성종이 윤비를 폐하려 하자 형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누님에게 가서 물었다. 누님이 대답했다.

"윤비의 아들이 세자로 있는데 그 어머니를 폐한다면 장차 세자가 임금에 되었을 때 어찌 후환이 두렵지 않으리요."

윤비의 아들은 곧 연산군이었다. 그 말을 듣고 허풍은 입궐하다가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기절하였다. 하인이 급히 달려가 승정원에 간 후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동생 허침은 누님의 말을 따라 폐비론에 반대했다.

훗날 연산군이 즉위한 후 갑자사화가 일어나 당시 폐비론에 참여했던 신하들을 모두 죽였지만 허풍은 연산군 즉위 이전에 세상을 떠났고, 허침은 무사하였다.

허풍(許琮)과 허침(許琛) 1434년(세종16)~1494년(성종25). 허풍의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종경(宗卿) 또는 종지(宗之). 상우당(尙友堂)이다. 1456년(세조2)에 생원시를 거쳐, 1457년 별시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1459년 연로(筮路)를 개방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경연을 열 것 등을 상소하여 세조의 신임을 얻었다. 1466년 함길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나 부친상을 당해 사직하였다가 이듬해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공신에 올랐다. 이후 대사헌, 병조판서, 예조판서, 의정부 좌찬성이 되었다가 사직하였다. 1481년 조정에 복귀하여 호조판서가 되었으며, 이듬해 우찬성이 되었다. 1485년에 모친상을 당해 다시 사직하였다가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성종때 청백리로 뽑혔다.

동생 허침(1444~1505)은 벼슬이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1504년 우의정에서 되었다. 1485년에 모친상을 당해 다시 사직하였다가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성종때 청백리로 뽑혔다.

동생 허침(1444~1505)은 벼슬이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1504년 우의정에서 되었다. 1485년에 모친상을 당해 다시 사직하였다가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성종때 청백리로 뽑혔다.

포천의 역사와 문화재 ⑤

조선시대후기와 위정척사의 고장

이 중훈 포천시역사학



경기도문화원연구실사

임진왜란이 울곡 이이가 주창한 10만 양병설 등 자주국방태세의 미비와 당쟁의 혼란 속에서 아무런 대비태세도 없이 7년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회기강은 해이해져 엄격한 신분제의 해이와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수령들의 기렴주구(苛儉誅求)가 많이 행해졌으며 농경지는 크게 줄고 양반이 소지주로 몰락하고 돈을 모은 양민세력이 신분상승을 하며 노비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의 포천, 영평지역은 중앙의 사대부, 관료세력들이 많이 이거하여 새로운 양반세력들의 지역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생거포천(生居抱川)'이란 말은 포천이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란 말로 양반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되어진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불과 30여년간에 다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며 속중조에 김석문은 자기 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인조반정을 통해서 두세한

서인세력들은 화이사상(華夷思想)을 중시하여 망해버린 명나라를 위하여 대보단과 만동묘의 설치를 통해 조선을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하는가 하면 신홍청 나라를 야만으로 몰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북벌론을 전개하며 청나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당해야 했다.

이 때 성리학에 대한 비평을 가한 윤휴 박세당 등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리었으며 현실 접근적인 양명학(陽明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며 실사구시적인 실학사상이 서서히 사회에 유입되게 된다.

이 시기에 인조의 세번재 왕자인 인평대군이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 와서 인조와 효종시절 왕의 특사로 청나라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38세의 젊은 나이로 예술가이자 외교관의 생애를 끝내고 신복면 신평리에 모소를 남기게 되며 속중조에 김석문은 자기 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인조반정을 통해서 두세한

양문대신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서구는 사가시인(四家詩人)으로 당시 박제가, 유득공, 홍대용 등과 더불어 실학파의 거두로 포천의 문화인들이 된다. 이 시기에 각종 사회부조리를 혁파하고자 농민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데 대표적인 항쟁이 홍경래가 일으킨 관서 농민전쟁으로 포천인 정만석이 항경, 평안관찰사로 나가 진무를 하고 다시 평양감사로 이 사건을 기록한 관서신미록을 남기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가장 큰 역사 사건으로 사도세자의 죽음과 연관되어 조선사화가 당파와는 별개로 벽파와 시파로 나뉘어지는 데 주로 사도세자의 입장에 동정하는 시파에 천주교도들이 들어와 사학을 전파하여 성리학사상과 대립되는 사상과 의례가 파생되며 국가의 기강을 지키고 소중화를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사상이 고조되며 포천 사회가 위정척사의 본 고장이 되게 된다.

초대 漢詩

楓菊佳節吟

풍국가절음



양기성 운영서원장

菊楓佳節戀心先 樹液歸根落葉前 (국풍가절연심선심수액귀근낙엽전) 국풍가절에는 마음이 먼저 변하여 수액이 뿌리로 낙엽전에 돌아간다

騷亂蚊軍無去處 噪聲雀聚有庭邊 (소란문군무거처조성작취유정변) 소란한 모기떼가 간곳이 없고 침새떼가 지저귀며 마당가에 있구나

夕陽北岳雲容澹 夜半西山月色妍 (석양북악운용담야반서산월색연) 석양북악에는 구름모양이 맑으며 밤중에 서산에는 달빛이 좋고

稼穡田園黃熟化 農民面貌笑花連 (가색전원황숙화농민면모소화련) 전원에 농사는 황숙화하니 농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이어지네